

정부 지원 축소...전남,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골머리'

전국 발생량의 30% 연간 4만6천t 유입
정부, 관련사업 지자체 이양·폐지 지속
정확한 3척 내구연한 초과 '발등의 불'
"지방재정 한계...국가 지원 확대" 촉구

정부 지원 축소로 전남도가 중국 해상과 타 지역에서 밀려오는 막대한 양의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전남도가 매년 수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대응하고 있지만 내구연한을 초과한 해양환경정화선 등 기반시설 부족으로 유입량이 수거량을 뛰어넘는 악순환이 지속돼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실적은 2020년 4만1천325t, 2021년 3만3천534t, 2022년 3만4천671t, 2023년 4만2천475t, 2024년 4만5천271t 등 총 19만7천321t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해양을 접한 전국 11개 광역지자체가 수거한 전체 해양쓰레기(67만474t)의 34.5%를 차지한다.

전남 16개 연안 시·군에 걸친 해안선은 총 6천873km로 전국 해안선의 44%에 이른다. 도내 도서 수는 2천165개로 전국의 64%, 갯벌은 1천71km로 전국의 44%를 각각 점유하고 있다. 지리적 특성 상 해양쓰레기가 전남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남도가 2023년 실시한 '전남도 해양폐기물·해양오염 퇴적물 관리 정책 수립 및 대응 방안' 연구용역에 따르면 매년 전남 해역에 약 4만6천5



서창 감성조망대의 낙조 붉은 노을과 은빛 역새, 실랑이는 바람이 공존하는 서창 감성조망대에서 지난 11일 시민들이 붉은 빛을 내뿜으며 화려한 자태를 뽐내는 낙조 풍경을 감상하고 있다. 옛 서창포구에 생태계를 보전하면서 설치된 전망대는 이달 1일 공식 개장했다. 조망대와 데크길·나눔누리 숲(노을마루)이 마련돼 주말 인파들이 몰리는 새로운 광주의 명소로 자리 잡았다. 오는 16일부터 나흘간 남도 대표 자연 힐링축제인 제10회 광주서창역사축제가 감성조망대 인근에서 펼쳐진다. /김애리 기자

90t 가량의 해양쓰레기가 유입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 가운데 정확한 발생지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해상기인과 외국기인 해양쓰레기가 각각 3만2천11t, 8천617t 등 총 8%에 달해 대응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2023년 기준 전남의 해양쓰레기 현존량은 8만9천288t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전국 해양쓰레기 현존량의 50%를 차지한다. 구체적으로 침적 해양쓰레기 6만4천396t (72.1%), 해안 2만4천611t (27.6%), 부유 291t (0.3%) 등으로 분석된다.

해양쓰레기 전남 유입량이 갈수록 늘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은 오히려 축소되고 있다.

실제 해양수산부는 2020년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 양식어장 정화, 방치선박 정리 지원,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 등 4개 사업을 각

지자체로 이양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엔 강하구 쓰레기 수거, 페스티로폼 감용기 보급 확대, 해양쓰레기 육상집하장 설치·운영 등 4개 사업까지 폐지했다.

이와 함께 해양쓰레기를 체계적으로 배출·수거·처리할 수 있는 기반시설의 노후화도 심각하다.

현재 전남에는 총 5척(여수시 2척, 전남도·완도군·고흥군 각 1척)의 해양환경정화선이 투입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달 신규 취항한 완도 정화선과 2019년부터 운영된 고흥 정화선을 제외한 3척의 정화선은 평균 연령 25년을 넘은 노후 선박들로 침적폐기물을 수거할 수 있는 크레인과 인양틀 등 수거장비를 갖추지 못했다.

여수 해양환경정화선 2척의 연령은 각각 24년으로 내구연한(25년) 초과를 앞두고 있다. 특히 전남도에서 운영하는 정화선은 연령 28년으로 내구연한을 넘어서 사고 우려뿐만 아니라, 효율 저하가 불가피하다. 대체 건조가 시급하다는 이야기다.

전남도는 해양수산부와 기획재정부에 내년 해양환경정화선 신규 건조와 설계를 위한 국비 19억원을 지속 요청하고 있다.

또한 신속한 해양쓰레기 수거·처리를 위해 현행 50%인 국비 지원율을 환경부의 하천·하구 쓰레기 수거 국비 지원율인 70%까지 상향하는 등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발생 원인이 불분명한 해양쓰레기를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수거·처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기반시설 확충, 국비 지원을 상향, 인프라 확충 등 적극적인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양시원 기자

광주 택시요금 22일부터 오른다...기본요금 4천800원

물가대책위, 평균 11.6% 인상안 확정

주행거리 100원당 134m→132m 조정

심야할증 시간대별 세분화 인상효과

광주지역 택시 기본요금이 오는 22일부터 4천800원으로 인상된다. 주행거리 등을 포함한 택시요금 평균 인상률은 11.6%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현행 4천300원(2km)에서 4천800원(1.7km)으로 올리는 방안을 확정하고 지난 10일 고시했다.

광주 택시요금 인상은 2023년 이후 2년 만으로 지속적인 물가 상승과 운송원가 인상, 기사

인력난 해소 등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게 광주시의 입장이다.

주행거리 요금은 100원 당 134m에서 132m로 조정됐으며, 시속 15km 이하 저속 주행 시 부과되는 시간요금은 100원당 32초로 현행과 동일하다.

심야 할증도 기존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일괄 20%에서 자정부터 오전 2시까지 30%, 오후 11시-자정·오전 2시-4시 20% 등으로 세분화된다.

시계 외 운행의 경우 일반 지역은 35%로 유지되지만, 담양·장성·함평·나주 등 인접 시·군 운행 시 할증률이 35%에서 40%로 인상된다.

또한 심야와 시계 외 구간이 겹칠 경우 복합 할증률은 기존 40%에서 50%로 확대된다. 혁신

도시로 향하는 경우에는 도착 요금의 30%가 추가된다.

모범·대형택시 기본요금도 기존 5천100원(2km)에서 5천400원(1.7km)으로 조정되며, 거리요금은 200원 당 156m에서 149m로 변경된다. 시간요금은 시속 15km 이하 구간 기준 36초당 200원으로 유지된다.

이번 조정으로 요금 체계가 현실화되면서 운송업체의 수익 구조 개선에 일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 관계자는 "물가 상승과 인건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택시업계의 현실을 고려해 요금을 조정했다"며 "시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과 안전운행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변은진 기자

늦더위 꺾이고 '가을 장마' 지속

최고 26-27도...주중 비 오락가락

이번 주 광주·전남의 최고기온은 26-27도로 늦더위가 한풀 꺾이지만 가을 장마는 지속될 것으로 예보됐다.

12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13일 오후 3시부터 14일 오후 6시 사이 광주·전남 곳곳에서 비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10-50mm다.

14일에 그친 비는 15일 오후부터 다시 내리겠다. 비는 18일까지 내리고 그치길 반복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 11일 31.4도(광양)까지 올랐던 최고기온은 이번 주부터 다소 낮아지겠다.

13일 최고·최저기온은 각각 24-27도, 17-20도 분포를 보이겠다.

14-15일 최고기온은 23-26도, 양일 최저기온은 각각 19-21도, 17-20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기상청 관계자는 "당분간 최저·최고기온은 평년(각각 9-16도, 22-24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며 "비가 내리는 지역에선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으니 교통 안전에 유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연재명 기자

Today	
5·18 시민군, 잇따라 동지들 곁으로...	6면
스웨덴 입양 한인들 광주서 뿌리 찾기	7면
KIA 2025 시즌 결산...〈1〉투수	16면

(주)송천

전기공사업 · 신재생 에너지기업 · 태양광 발전 시공/인허가

태양광 완벽 시공 기술...신재생에너지 산업 선도한다

(주)송천은 건물 태양광 발전과 농촌 태양광 발전 등을 시공하며 대한민국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지역 대표 기업입니다. 지난 2014년 설립해 10여년 이상 꾸준한 성장을 이뤘고 있으며 사회공헌 활동도 활발히 이어와 지역 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엔 매출 100억원을 달성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결과로 입증해 나가고 있습니다.

광주 북구 첨단벤처소로에 위치한 (주)송천 전경

양승환 대표이사

TEL. 062) 972.1527 / H.P. 010.9882.2405

본 사 |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조산로 322 2동 1층
광주사무실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벤처소로 16-2(월출동 971-39, 2층)